

전력산업기초인력양성사업



구미1대학편



오진훈
구미1대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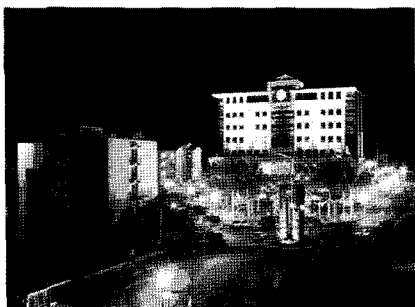


이동훈
구미1대학교수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산업기초인력양성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시작된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기술직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자 부족사태를 초래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이공계 분야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어 한국전력으로부터의 기금을 활용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전기 분야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졸업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획기적인 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으로 기초인력양성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학과 발전의 모범적 예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10개 전문대학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라는 테마가 화두로 등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실효과, 공해물질 유발, 화석연료의 고갈 등의 문제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등의 기술은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대학의 교육과정도 변화되고 있다. 전력산업기초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 및 대학의 대응 투자 분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자재 확보 및 인력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캠퍼스 전경



국제화 인재 양성프로그램



구미대학 사업목표

구미1대학은 경상북도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구미시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추진으로 연간 3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관련 산업체인 (주)STX솔라, (주)웅진폴리실리콘, (주)미리넷솔라 등과 기술 교류 협약을 추진 중이며, 교육과정에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여 향후 관련 산업분야의 부족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1대학은 6년 간 전력산업기초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을 발판으로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로부터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였고(내신 6등급 이내 전체의 85%),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의한 우수인력을 양성,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질적 취업률을 향상시켰다. 2009학년도 구미1대학 전기에너지계열 취업률은 100%이며, 2010학년도 4대 보험 가입 취업률은 91%이다. 또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한편, 해외유학 희망자에 대비하여 일본 전역 14개 4년제 대학과 협약을 체결, 졸업한 후에는 유학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 현지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력인력양성 장학금 지급
- 고교 내신 및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 제도 도입



장학금 수여

2.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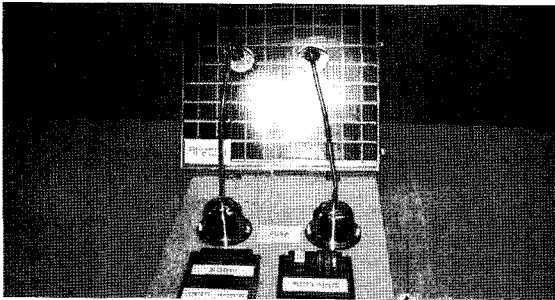


국내기술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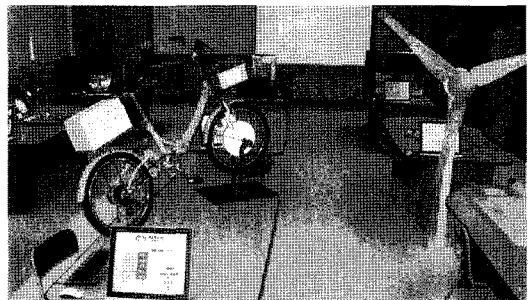


산·학·관 인력양성 세미나

- 신재생에너지 교육



신재생에너지 실험



동아리 작품 제작

3. 취업

-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경상북도, 구미시) 및 인력양성 세미나 실시

- 취업특강 및 국내·외산업체 견학

- 국내·외 대학 편입 지원



산업기사 특강



구주산업대학 견학



서일본공대 협약체결

4. 맺음말

구미1대학 전기에너지과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구미시, 경상북도) 및 정부의 에너지 개발정책과 함께, 지역 산업체 및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나갈 방침이다.